

주일의말씀

## 초 심



김원일 안드레아 신부  
만촌성당 주임

얼마 전에 서울 화계사 주지였던 수경스님의 '다시 길을 떠나며' 라는 글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생면부지인 스님이시기에 그분의 사상도 모르지만 그 글의 몇 부분은 가슴에 화인되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남은 인생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살고 싶습니다. ... 이대로 살면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할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중노릇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 수경스님의 이 글을 읽으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가슴을 치며 새삼스레 마음을 다잡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의 그 마음을, 사제서품을 받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대접해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초대할 때는 마르타에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 왜 일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일에 지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을 듣는 동생 마리아가 알뜰하게 느껴집니다. 일을 하다 보니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초대했던 첫 마음을 잊어 버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 자신이 왜 일을 하는지를 잊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면 내가 올라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 3, 30) 고 하는데 반대로 되었습니다.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당에 처음 나올 때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말씀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 10,38-42  
창세 18,1-10L 콜로 1,24-28 루카 10,38-42.



## 생명에 대하여 ②

교구 사목국

배이는 우리와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할 온전한  
인간 생명

우 리 교회가 생  
명 윤리 법에  
대하여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인  
간 배아가 우리와  
동등하게 존중받  
아야 할 온전한 인  
간 생명이라는 점 때  
문입니다. 비록 0.1mm

크기의 미미한 존재인 것처럼 여

겨져도 여기에는 이미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인간으로서 특징인 유전자형이 이 시기에 결정될 뿐  
만 아니라 철학적,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존재의 가  
장 첫 순간인 수정란에서부터 온전한 한 인간이 시  
작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아를 연구나 치료목적으로 조작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  
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배이란 인간의 수정  
란과 수정된 때부터 착상 완료 이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제 2조 3항)으로 규정하여 배아 자체를 인  
간 생명이 아닌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간주하고 있습  
니다. 이것을 근거로 배아를 복제하고 또 파괴하  
는 연구자들 자신은 생명을 만들지도 또 파괴하  
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변명하고 있습니다.

세포덩어리를 가지고 연구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않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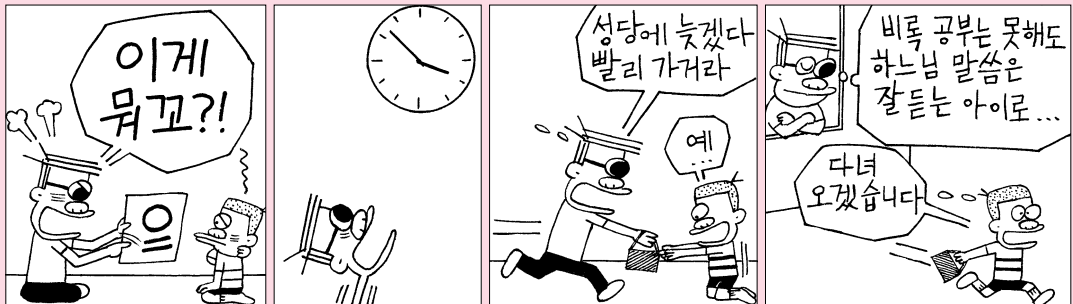
그러나 복제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복제 배이는 비  
록 비정상적 과정일지라도 생명의 탄생 과정을 정확  
히 재현하며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복  
제양 돌리(1996년.영국)가 만들어졌고, 또 복제 개  
스너피(2005년.한국)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복제  
배아가 생명이 아니라면 돌리도, 스너피도 생명  
이 아니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인간 생명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 윤리의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  
다. 우리 교회는 인간 생명이 탄생하는 최초의 결정  
적인 순간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가르칩  
니다. 이 순간에 유일하고도 반복되어질 수 없는, 아  
버지와 어머니의 생명과 구별되는 새 생명이 시작되  
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수정  
이 이루어지는 수정란의 시기를 인간 생명이 시  
작된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  
다.(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 참조, ‘인  
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참조)

따라서 인간은 그 존재의 첫 순간(수정란이나 복  
제된 배아에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 배  
아에 관한 연구나 실험, 배아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의료 조작이 배아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온전성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여기  
에 대해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무선 순위

박성규 엘리시오





영성의 향기

오늘의 미사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

입당성가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 수 있으리이까?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파견성가

19 주를 따르리

:: 하나님의 평화

바로 사도가 가르친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많은 신앙인들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의지할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눈앞이 캄캄하게 막힐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많은 신앙인들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청원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 아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평화'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 감사와 기도 그리고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없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적 기쁨'이 생길 리 없겠지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와 소유 그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또 진정한 의미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현세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복음(福音)'의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129**

-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링컨의 지혜



남북 전쟁의 암운이 미국을 뒤덮고 있을 때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황이 급박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링컨이나 국무장관의 승인 없이 육군 대장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 이미 진행된 일들을 보고 받으며 링컨은 말없이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무장관은 이성을 잃고 화부터 냈습니다. 어느 날 국무장관이 어떤 육군대장의 야전응급조치 때문에 링컨을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링컨은 화가 난 국무장관이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게 말한 것을 그에게 편지로 써 보내게." 이를 후, 그는 자기가 쓴 편지를 링컨에게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게나." 그러자 국무장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편지를 쓰는 데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를 동안 자네는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터득했네.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이 일을 통해 국무장관은 인내와 기다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율겨은 글입니다. -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대성당 설계공모 안내**

• 기간: 6.14(월)~9.13(일)  
※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서 등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모임·행사 / 모집·교육 ★**

**대구 생명 평화 미사**

• 일시: 7.19(일) 19:30, 율배성당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 일시: 7.19(일) 14:00, 교구청별관 대회합실

• 네이바카페 대구대교구전례꽃꽂이연구회

**가톨릭음악원 전례음악특강(강사: Sr.김정선)**

• 일시: 7.19(일), 26(일) 17:30~19:00

• 문의: 대구가톨릭음악원 255-4847

**가톨릭 미용인회 빛모임**

• 일시: 7.26(일) 20:30 요안나미용학원

•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제13회 창작생활성가경연대회**

• 예선심사: 9.30(목), 본선: 11.13(토) 19:00

• 문의: 대구대교구 제3대리구청 사무실 6340653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선교활동 봉사자 구함**

• 대상: 성서학교, 신학원교육 수료자

• 나이: 40~60대 여성

• 신청: 한국천주교기독교단(계산성당 문화관 3층)  
781-6100(leepan-seok@catholic-sm.org)

**푸른평화 여성병학 초등학생 캠프**

• 일시: 8.2(일)~5(목) 3박4일

**유아·초등·중등 통합예술테라피**

• 일시: 7.27(화)~8.19(목) 매주 화, 목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성체신심세미나(010-5493-1819)**

• 일시: 8.20(금)~22(일), 한티피정의집

• 내용: 성체현시, 조배, 참회예절, 면담신사, 안수

• 강사: 신부: 이흥근(바오로) 하성호(사도요한)

송재준(마르코)서덕교(야고보)정기모(요한보스코)

• 주관: 대구대교구 지숙적인조배회

**5차원 전면교육 리더십 특별교정**

• 일시: 8.2(일)~4(수) 2071, 8.27(금)~29(일) 21기

•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054-436-0184

• 대상: 초·중·고 및 대학생(전화신청가능)

• 문의: 010-3883-7004(daum.cafe.우아청참조)

• 주관: 우아청청소년영성의집살레시오수녀회

**노들담 오르프 연구소 여름 단기 세미나**

• 일시: 7.29(목)~31(토) 9:30~18:00

• 장소: 상인동 소화 어린이집

• 문의: 010-7392-1227 / 010-9034-4911

<http://cafe.daum.net/notredameoff>

**제30차 수도생활체험학교**

• 일시: 8.5(목)~8(일)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 대상: 고등학교 2년이상~만 32세이하의 미혼 남녀(신청수 50명)

• 문의: 054-970-2000 / 010-8353-2323

**제2차 성경을 통한 선교학교**

• 일시: 8.26(목)~11.4(목) 10주간

오전반: 10:00, 오후반: 19:30

•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나동 4층 대회의실

• 대상: 모든 레지오 단원

**2010 살레시오 여름 성소캠프**

• 일시: 7.30(금)~8.1(일) 2박 3일

• 장소: 서울 신월동 살레시오 교육회관

• 대상: 형제님들, 중 3이상의 30세이하

• 문의: 수도원 02-831-3068 / 010-3894-1332

**여대생 기숙사 안내**

•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종교무관)

•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국민대 건너편)

•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http://www.rcm1892.net>)

**★ 파정 / 성소 모임 ★**

**대구대교구 하계 성소파정**

중,1,2, 8.17(화)~18(수), 무학연수원

8.3(화)~5(목), 학년별 다른 장소

8.10(화)~12(목), 한티 영성관

• 신청마감: 7.28(수) 16:30까지

• 문의: 250-3071 / 010-6776-3071

**MSK 젊은이 피정**

• 일시: 7.30(금)~8.1(일), 회비: 3만원

중·고등부 7.23(금)~7.25(일)

• 장소: 부산 한국외방선교수녀회

• 대상: 35세미만의 미혼여성

• 문의: 최마리아네수녀 011-9319-1690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미사안수)**

• 일시: 7.21(수)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전교가르멜수녀회성소모임**

• 일시: 7.25(일), 8.22(일) 14:00~17:00

• 장소: 가르멜수도원 010-2646-7765

**소보동지 수도체험 1박2일**

• 일시: 8.14(토) 16:00~15(일) 16:00

• 장소: 군위소보동지(회비: 1만5천원)

• 대상: 남녀 청년, 중·고학생

• 신청: 다음카페 luxamor486

• 문의: 010-9056-9005, 마감: 8.8(일)

**천주교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7.25(일) 14:00, 서울 수도원

• 대상: 보건의료 및 사회사업 사도직에 관심있는 청년, 일반인

• 문의: 010-3800-1579

**★ 직원 채용 ★**

**동인천주교회 신협 임시직원 모집(3개월 계약)**

• 근무기간: 9월 중순~12월 중순 예정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 문의: 423-7220

**★ 안 내 ★**

**산내성당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 및 교재비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산내성당 054-751-1571

**생활성가합회 월례미사**

• 일시: 셋째주일 19:00, 삼덕성당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7월 19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한티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7월 19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9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7월 20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2484 익스프레스**

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5 밝은 눈 안과**

원장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당일수술·퇴원 초음파영상·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 앞

**5 차원 학습법**

독서·논술·언어  
교과서 분석 독서(초·중·고)

임채영(가밀라) ☎ 784-2180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 독 보 청 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송선희(안나)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목 ▶ 야간 진료)

**노동부 지정 푸텍스 요리직업 전문학교**

국비지원(계좌제)

취업반 창업반 자격증반

위치▶지하철 큰고개역 1번출구  
원장 김경희 스테파니아  
Tel : 053)953-9800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대려사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야채, 전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산물,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기전

765-1500 (어린이화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리스도신부)

**강북 행복하는 치과**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트럴

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323-2875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